

주요개념 : 양육, 조모, 건강정보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

오진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점하게 됨으로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1). 고령화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1962년부터 실시해온 출산조절정책의 결과인 저출산 현상이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1996년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나타나 인구대치수준인 2.1명을 훨씬 밑돌뿐 아니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은 결혼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과중

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의 미비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의 원인은 자녀양육의 과중한 부담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취업모의 경우에도 출산과 자녀양육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경혜, 1998).

과거 농경사회의 직계가족제도 내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와 함께 조모가 된 여성노인들이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감과 훈육, 보호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여 손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조모는 손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었으며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손자녀의 생활과 놀이를 주관하고 무릎학교 원장으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유안진, 1994, 조결자 등, 2005). 한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들 취업모는 보육시설의 부족 등 육아제도의 사회시스템 미비, 경제적 부담감, 양육자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로 인

\* 본 연구는 (주)태평양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노인건강전략개발연구소  
교신저자 : ohjina@inje.ac.kr

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은 취업여성이 자녀의 친조모 혹은 외조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고 있다(동아일보, 2001). 이는 가족의 부양 및 육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한국사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조모와 같은 가능한 가족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조모의 기간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조모는 손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성인 자녀와의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손자녀 육아를 기꺼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가정 경제 주도권 이양, 가정내 역할의 변화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역할 참여 기회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Adelman(1994)은 육아를 포함하여 노년기에 갖는 다양한 역할참여는 안녕과 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일부 노인들에게는 우울 증상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때 일부 조모는 단순육아에서 더 나아가 손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동아일보, 2002), 장차 취업모 가정내에서 조모의 적극적인 역할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조모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며 노화는 쇠퇴의 과정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하고 노년기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동시에 육아를 맡은 조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기도 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Dowdell & Sherwen, 1998).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노화과정의 적응과 건강지각에 대한 문제와 함께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입장과 그 손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까지 안게 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스트레스 등을 다루는 연구를 외국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 손자녀 양육담당자로서의 조모의 입장에서의 건강에 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정책연구도 확대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가족 기능과 아동의 성장발달증진 차원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 요구에 대한 주관적인 자료를 얻고 이를 기초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리에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용어 정의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 전문직, 임시직, 생산직 등 취업모 가정내에서 가족과 함께 기거하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현재 3개월 이상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친조모 혹은 외조모

## 3. 연구문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건강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서술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 중 조모에 초점을 두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담당자의 역할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역할로 기대되어 실제로 조부보다는 조모가 손자녀를 더 많이 돌봐주고 대리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Fuller-Tomson et al., 1997). 선행연구에서 친손 내지 외손에 따라 조모의 역할수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박화윤, 이영숙, 1999; 서동인, 1991) 본 연구에서는 외조모와 친조모를 구분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일개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8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면담에서 진술된 내용은 비밀유지와 익명 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으며,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3. 자료수집방법

질문의 개발은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여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으로 초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검토한 후 최종적인 질문을 구성하였

다. 질문내용은 시작질문으로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환질문으로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요질문으로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건강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십니까?”, 마무리질문으로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등이었다.

심층면담의 진행은 모임 전에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를 설명하여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였고 장소와 모임 날짜를 약속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었고, 장소는 일개 초등학교 교사휴게실이었다. 각 모임의 인터뷰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에 대한 자료는 Downe-Wamboldt(1992)가 제시하는 내용 분석 단계에 의해 분석하였다.

#### 1) 분석단위 선정

우선 면담 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능한 빨리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쇄하였다. 인쇄된 내용을 여러번 반복해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에 근거하여 건강정보요구와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이나 문장에 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탐구하였다.

#### 2) 범주도출과 정의

구문과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의미있는 진술로 뽑아낸 자료에 먼저 일련번호를 매기고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여자별 재진술을 하였다. 재진술문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 참여자별 자료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구문과 문장을 묶어 참여자별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개념과 문장간의 연계성을 재검토하였다. 먼저 참여자중 3명에서 도출된 개념을 면담자간 지속적인 비교분석과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일차 범주도식을 만들고 정의하였다.

3) 범주정의와 규칙의 사전검사와 수정을 거쳐 모든 자료의 코딩

본문과 내용분석결과간의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범주도식의 지속적인 정련과 타당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차분류의 코딩도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면서 비슷한 속성의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고 나머지 참여자의 면담자료를 코딩하였다. 각 참여자별 범주로 분류한 후에는 공통된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전체 의미있는 진술을 통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범주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제모음과 범주로 분류하였다. 진술한 범주와 주제모음은 원래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번 질문해보고 범주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면서 원자료와 범주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4) 신뢰도와 타당도 사정

마지막 단계로 분석된 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와 다시 만나 설명한 후 직접 읽어보도록 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내용분석과정과 범주화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질적연구를 담당하는 간호학교수 1인으로부터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4.4세이었다. 참여자의 결혼상태는 6명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2명은 사별한 상태였다. 돌보는 손자녀의 평균연령은 만 5.6세였으며,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분포는 2.1세(영유아기)~9.8세(학령기)였다. 성인자녀의 직업은 자영업(2명), 회사원(5명), 서비스직(1명)이었고 가족내 평균월수입은 약 350만원이었다.

#### 2.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로 의미 있는 진술은 96개였으며, 이를 3개의 범주와 5개의 주제모음, 17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표 1>

<표 1>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관리요구

범주	주제모음	주제
자신의 건강	신체적 건강문제	통증
		피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	불면증
		화
손자녀의 건강	손자녀 증상관리	짜증
		우울
	손자녀 생활습관	소외감
		양육부담감
성인자녀의 건강	성인자녀 생활습관	감기
		복통
		영양
		운동
	비만	
	흡연	

##### 1) 범주 1. 자신의 건강

조모 자신의 건강문제 범주는 통증, 피로, 불면증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의 주제모음과 화, 짜증, 우울,

소외감, 그리고 손자녀 돌보기로 인한 양육부담감의 심리사회적 건강문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다.

(1) 신체적 건강문제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는 퇴행성관절염과 신경통 등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심맥관계의 변화로 인한 피로, 불면증 등이 주요한 건강문제였으며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관리 요구가 있었다.

이제는 애도 못해주겠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고칠 길도 없고..., 광고 있잖아, 비가 오려나~ 하는. 날씨가 궂으면 온몸이 다 쭈셔인(통증)

저녁 때가 되면 녹초가 돼. 제 언니대신 애들 유치원에라도 다녀오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해. 피곤해서(피로)

낮에 눈이아도 붙이면 좋은데, 내가 낮잠 자버릇 하질 않아서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밤에 한 번 잠을 놓치면 새벽이 되도록 잠을 못자(불면증)

(2) 심리사회적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는 상호작용의 괴리에서 기인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거나 불행감과 불만족을 느끼면서 화, 짜증, 우울 등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건강정보요구였다. 또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소외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손자녀가 영유아기에 이미 학습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연령증가와 기억력 저하에 따른 노인 자신의 학습능력 저하뿐 아니라 손자녀의 학습관리에 대한 부담감은 양육부담감의 형태로 나타나 노인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모였다 하면 그 얘기에. 손주녀석 키워줄 거 못된다구. 지네 병병이만 하면 지 새끼 지가 키워

야지. 그래면서도 우짜지도 못하고 내가 이려고 사니 한번씩 핏병이 나지 싶어(화)

애들이 뭇 장등을 때는 이쁘지, 지등끼리 싸우고, 애머가 오도록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짜증부터 나(짜증)

내 딸자가 뭐 이거야 싶어. 어쨌 땀 아부지 뭇 씌에 끈적 못했구만, 시집오니 시집살이지, 이제는 손주새끼까지 키워야 하니까.. 이게 노넷말에도 있지, 여자의 일생이라고. 기본이 딱 그래(우울)

깁나는 친구도 없어인, 손주 키우는 할매들은 아예 끼지도 못해. 애들이 좀 더 크면 모를까, 친구를 깁나도 재미도 없어. 애들 걱정땀에. 아예 아무도 안깁나지더라고(소외감)

애들이 컴퓨터 앞에깁 앉아있어서 맨날 잔소리 해도 컴퓨터만 죽어라고 매달리고, 이래 안되지 싶어 책이라도 읽으라고 하면 잔소리를 듣고... 애들이 너무 책을 안읽어서 괜찮음내나 싶어. 이제 큰 애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 갔다오면 학원 보내고, 숙제도 좀 봐줘야 할진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애들 공부하는 거사, 지 부모들이 알아 하겠제 하면서도 신경쓰여(양육부담감)

2) 범주 2. 손자녀의 건강

손자녀의 건강 범주는 감기, 복통 등의 손자녀 증상관리의 주제모음과 영양, 운동, 수면 등의 손자녀 생활습관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다.

(1) 손자녀 증상관리

손자녀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에 당황하기도 하고, 증상관리에 있어 딸이나 며느리와 의견차찰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전문서적이거나 인터넷, 신문보도 등 다양한 정보로부터 제외되어 있음을 손자녀 돌보기에 있어서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애들이 아프면 대책없지. 아예 큰 병이면 지들 애비, 에리가 병원어라도 데리고 가지, 찬바람 북면 콧물 흐르고, 기침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디게 잘못했나 싶어 속도 상하고...(갓기)

뭘 잘못 먹었는지, 한번씩 배도 아프다고 하고, 그카다가 석사도 하고, 영 안중으면 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매식줍을 마시키우기는 하는데, 그나연 다 되는건지... (복통)

## (2) 손자녀 생활습관

대부분 성인자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몫이 된다. 아동의 기본적인 체력 형성은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수면에 기인한다고 볼 때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녀와 함께 보내는 조모에게 손자녀의 생활습관에 관한 건강정보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손자녀의 영양공급에 관한 부담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감시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고 상대적으로 운동과 수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는 양육부담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건강문제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정보요구이다.

잘 거뒀먹어야 하는데, 애가 입이 짧아서 뭘 해줘도 잘 안먹어. 인쇄 애들 좋아하는 게 그게 쌀밥 찌우지 제대호 영양공급이 되나. 학교가는 늦은 늦잠자서 아침도 제대호 못먹고 지 애리는 큰후레이크인가 뭔가 그거말 먹이면 된다는데, 그게 영양가가 있나(영양)

애가 벌써 30kg이 너어. 지 애비도 어릴 때 통통하더니, 인쇄는 똥똥하면 문제 많다고들 하던데,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할지... 태권도쯤 쥘 보내라고 해도 지가 가기 싫어하니까, (운동)

컴퓨터인지 뭔지 한다고 늦게 자지, 지 애비

기다리느라 맨날 늦게 자지 아침엔 지 애미 나가는 것도 못보고 계속 자(수면)

## 3) 범주 3. 성인자녀건강

마지막은 성인기의 딸(며느리) 건강과 아들(사위) 건강정보에 관한 것으로 성인자녀 생활습관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성인자녀의 건강도 자신이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1) 성인자녀 생활습관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성인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음주, 흡연의 문제와 지방간,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 관리에 관한 건강정보요구가 있었다. 또 직장 여성은 직장업무 외에 가사 일을 함께 하고 있어 만성적인 피로와 체력저하가 예측되며 이에 대해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있는 조모로서는 딸(며느리)에 대하여 같은 여성으로서의 측은한 마음을 표현하며 기본적인 체력관리와 딸(며느리)의 비만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래 흰등긴데 쌀은 ㅁ 찌는 고 목나. 그기 쌀이 쥘 빠져야 뭇도 가볍고 할긴데... (비만)

인쇄 세상이 낫자란 벌어가지고 되나, 생각해 보면 딱하지 뭘. 밥이나 제대호 먹고 다니는지, 원채 약한 것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이라고 하는 게 뭇이나 먼저 안상하면... 내가 그렇게 병원에 한번 가보라해도 지 뭇 가까운 죽 모르고... (비만)

나이는 자꾸 들어서 배는 나오는데 지방간이라던가, 인쇄는 혈양도 높다고 하던데 젊은 사람이 왜 혈양이 높노, 숙 땀에 그렇나(음주)

숙도 일리카카고, 숙 안먹고 들어오는 날이 없어(음주)

스트레스 많다고 닳배도 못끓고, 베잔다 나가

서 피우는 것도 꼭사냥터란 그 몫에도 안 좋다는  
경 태 그리 피우는지(흡연)

#### IV. 논 의

손자녀 돌보기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모 자신의 삶과 나아가 가족의 세대관계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손자녀 돌보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반면 여러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한 것으로 연구결과 조모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손자녀의 건강, 성인자녀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가짐으로써 가족내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로 주제를 모을 수 있었다. 어린 아동의 돌보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조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된 데다 과중한 육아활동으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손자녀 돌보기에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154명의 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Dowdell(1995)의 연구에서 45%가 신체적 건강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Minkler 등(1993) 또한 손자녀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게 된 이후부터 37%의 조모가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고, 한국 여성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이혜경, 2002), 조모의 손자녀 돌보기로 인한 건강문제의 발생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 신경통 등에 기인한 통증

과 피로, 불면증에 대한 호소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건강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측면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거나 불행감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손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창조적인 여가활동 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의 여가활동인 친구중심의 여가활동 제한 등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노년기는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 사교적 활동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손자녀 돌보기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계획되지 않은 손자녀 돌보기를 해야하는 조모는 역할 갈등과 실망감을 겪는다(Brunette, 1999). Minkler, Roe와 Price(1992)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70%가 현재 이 역할이 가치있는 일로 느끼지만 기분이 저하되고 지치고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이 동시에 든다고 하였다. Kelly(1993)는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연령으로 손자녀 돌보기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노인 4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 집단 점수와 비교할 때 측정 도구의 9개 하위영역 중 6개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상자의 44%는 임상적 범위로 고려되는 90 백분위수 이상의 점수라고 하였다.

Kelly(1993)는 또 양육 스트레스를 표준집단과 비교할 때도 사회적 고립감과 역할 제한영역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화, 짜증, 우울, 소외감 등을 호소하여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육부담감은 손자녀 학습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교육열풍으로 손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조모는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학습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

다고 호소하였다. 게다가 신세대 자녀와 육아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가족 갈등의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한 심리적 건강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산업사회 이전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자녀양육을 맡아왔기 때문에 가정내의 육아법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전수되었으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의 외부에서 접한 육아지식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오진아, 2000).

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손자녀의 증상관리에 대한 건강정보요구가 있었다. 손자녀의 건강은 조모자신의 건강 못지않게 건강정보제공을 요하는 주요한 범주가 되었다. Dowdell과 Sherwen (1998)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사례연구에서도 양자의 건강상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손자녀의 건강과 노인의 안녕(well-be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Dressel과 Barnhill (1994)은 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8명의 조모와 21명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조모는 손자녀의 나쁜 행동에 대한 걱정 등이라고 하였는데, 손자녀의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건강한 행동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아직 면역체계가 미성숙하고 질병이 환율이 높은 아동기에 대한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성장발달은 출생전의 생물학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생후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 혹은 그 조모와 같은 대리인에 의해 돌보는 환경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오진아, 2000). 모든 긍정적인 환경적 지원이 제공될 때 아동은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아동 양육자의 태도 및 건강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

은 매우 중요하며, 또 손자녀의 건강 역시 조모의 안녕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손자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정보요구의 마지막 범주로 성인자녀의 생활습관 주제모음에서 도출된 성인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생활습관병은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정의할 때(김숙영, 1995),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성인자녀는 대개 30대로서 비만, 음주, 흡연 등에 기인한 각종 생활습관병에 노출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자기조절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조모는 성인자녀의 부모로서 여전히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자로서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생활에 대해 연구를 한 나향진(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에 주로 하는 활동 1순위가 손자녀 돌보기가 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것은 노인들이 집안일이나 손자녀 돌보기 등도 여가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인데, 이는 집안일이나 손자녀 돌보기가 돈을 벌지 않는 일이고, 집에서 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연구자는 이를 '달린 여가'라고 명명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여가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가끔씩 손자녀를 돌보고 조모로서의 기쁨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해야하는 조모는 조모 자신의 건강문제, 손자녀의 건강문제, 그리고 성인자녀의 건강문제까지도 자신들이 건강 요구가 됨을 주지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중간의 부모세대가 사망, 이혼, 실



직, 빈곤, 질병, 알콜/약물 중독, 투옥, 자녀학대와 유기 등으로 인해 그들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Solomon & Marx, 1995; Tolmin & Passman, 1989) 점점 많은 노인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Burnette, 1999), 많은 선행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물질적, 법적, 심리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Dowell, 1995; Dowdell & Sherwen, 1998; Kelley, 1993; Kelley, Yorker, & Whitley, 1997; Musil, 1998). 그리하여 1990년대 초기부터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지지 자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현재 국내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마련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저출산의 주원인인 양육문제에 대한 정책과 지지 방안이 나오고 있고, 또 노인건강과 간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노인관련 정책과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이러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가정 건강 지킴이로서 가족 건강관리의 중심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대통합형 가족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려는 조모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정보의 지원과 건강증진 중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건강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여 아동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는 2005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개 초등학교에 손자녀를 입학시킨 조모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있는 진술 96개의 구성된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17개의 주제를 발견하고 이들을 5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건강 요구를 [자신의 건강], [손자녀의 건강], [성인자녀의 건강]의 3범주로 규명하였다.

첫 번째 범주인 [모자신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의 주제에서 도출되었고, 두 번째 범주인 [손자녀의 건강]은 '손자녀 증상관리' '손자녀 생활습관'의 주제에서 도출되었으며, 세 번째 범주인 [성인자녀의 건강]은 '성인자녀 생활습관'의 주제에서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자신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건강문제, 손자녀의 건강, 성인자녀 건강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정보요구가 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가족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 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기혼 여성의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기피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많은 취업모들이 아동양육을 자녀의 조모에게 의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건강정보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이를 기초로 궁극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이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전체 사회에 통합된 생애 단계가 되도록 하며, 성장발달하는 아동의 좋은 양육환경으로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 요구에 따른 건

강관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기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혜 (1998). 중산층 맞벌이가족의 자녀보육실태와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리진, 윤종희 (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론, 현문사.
- 김숙영 (1995). 성인병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자기조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25(3), 562-580.
-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동아일보 (200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21>
- 동아일보 (2002).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20122>
- 박화윤, 이영숙 (199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서동인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진아 (2000).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분석: 육아(childcare). 간호과학, 12(2), 26-36.
- 유안진 (1994). 아동양육(육아론 개정판). 서울: 문음사.
- 이혜경 (2002).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연세사회복지연구, 8, 27-58.
- 조결자, 강경아, 김신정, 문영숙, 오진아, 유경희, 이지원, 탁영란 (2005). 아동과 가족간호. 서울: 현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services/service.jsp?itn=tbdata&sa=11&sno=17132>
- Adelmann, P. K. (1994). Multiple rol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 49(6), 277-285.
- Brunette, D. (1999). Social relationships of Latino grandparent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9(1), 49-58.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3(3), 27-30.
- Dowdell, E. B., & Sherwen, L.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May 8-13.
- Downe-Wambolt, B. (1992). Content analysis : methods,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Women Int, 13, 313-321.
- Dressel, P. L., & Barnhill, S. K. (1994). Reframing gerontological thought and practice: The case of grandmothers with daughters in prison. The Gerontologist, 34(5), 685-691.
- Fuller-Thomson, E., Mink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9(3), 406-411.
- Kell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 20, 326-332.
- Kelly, S. J., Yorker, B. C., & Whitley, D. (1997). To grandmother's house we go... and stay. Children raised in intergenerational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9), 12-20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Musil, Card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OECD (2001).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정경제부 역. 재정경제부
- Tomlin, A. M., & Passman, R. H. (1989). Grandmothers' responsibility in raising two-year olds facilitates their grandchildren's adaptive behavior: a preliminary intrafamilial investigation of mothers' and maternal grandmothers' effects. Psycho Aging, 4(1), 119-121.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 ABSTRACT

Key Words : Health management needs, Caring

# Health Information Needs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Oh, Jin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health information needs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8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entering school.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terviews done from March 7 to 9 in 2005.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analyzed using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3 main categories emerged from 5 theme clusters and 17 themes. The categories were 'health of

grandmother', 'health of grandchildren', and 'health of adult'. **Conclus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grandmothers have the variable health management needs of family members. From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information of health management of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Ultimately, a good care environment for children will be good for the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a Amorepacific Academy and Cultural Found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